

해남군 '귀농귀촌 1번지' 자리잡았다

상담·영농체험·귀농학교
희망센터 단계별 지원사업
2011부터 1404세대 유치

해남군 귀농귀촌희망센터가 차별화된 도시민 유치 전략으로 '귀농귀촌 1번지 땅 끝해남' 자리매김에 나섰다.

지난 2016년 개설한 귀농귀촌희망센터는 귀농귀촌 관련 정보 제공과 귀농인 맞춤형 종합상담, 영농체험 프로그램 운영, 귀농인 지원사업, 귀농학교 운영 등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귀농귀촌희망센터는 귀농 희망자에게 지역정보와 작목선택, 영농기술 습득, 정착 예정 장소, 영농계획 구성 등 귀농귀촌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센터 내에 예비 귀농인이 6개월간 거주하며 정착을 준비할 수 있는 귀농인하우스 2동을 운영해 이들이 사전에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안정적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농체험장을 찾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영농 현장실습장에서 작물을 심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해남군 제공>

또 폐교 운동장을 활용한 1600㎡ 규모의 귀농인 영농체험장은 무화과와 대추 등 시설하우스 작목과 과수와 약용작물, 토종작물 등을 식재하는 현장실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남군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타 시군과 차별되는

단계별 귀농지원사업을 추진해 주목 받고 있다.

귀농귀촌희망센터는 귀농인을 전입일 기준으로 총 4단계로 구분해 귀농인 농업인턴제와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귀농인 정착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 정착 소득기반조성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진

행하고 있다. 이중 귀농 정착 소득기반조성사업은 귀농인들의 소득작목 발굴과 재배기술 및 유통, 판매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귀농귀촌희망센터는 올해 홈페이지에 지원사업과 교육, 농지 등 각종 귀농귀촌 자료를 제공하는 북덕방을 개설하고 도시민 대상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명절 귀향객 대상 귀농귀촌상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산물 브랜드화가 정착돼 있고 농지와 주택 취득이 쉬운 해남은 원거리라는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시민들이 희망하는 귀농귀촌 지역으로 꼽혀왔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고 단계별 지원사업을 확대해 성공적인 귀농정착을 도울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04세대 2943명이 귀농귀촌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농기계 빌려 쓰세요

완도군 26종 142대 임대
내달 굴삭기·피복기 추가

완도군은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완도읍 대야리에 보관장고 660㎡의 규모로 26종 142대의 임대농업기계를 임대사업장에 배치했다. 다음달에도 농업용굴삭기, 관리기비닐피복기 총 2종 3대를 추가 구입할 예정이다.

임대료는 구입원가의 0.5%이며 임대기간은 1~3일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농가에서 연간 사용일수가 짧으면서 꼭 필요한 고가의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밖에 없어 농가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완도군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령의 농민들이 농업기계를 이용해 농가 경영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김준원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작업기를 임대해 사용하면서 시간과 물류비를 크게 줄여 영농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농가의 일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임대농업기계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기자·전남주재홍광본부장



사람 우선 교통문화... '서다·보다·걷다' 캠페인 완도경찰서(서장 김선권)는 6일 완도를 하나로마트 교차로에서 교통문화 만들기 일환으로 음주운전·신호위반 NO·방어보행 3원칙 '서다·보다·걷다' 캠페인을 펼쳤다. <완도경찰서 제공>

진도군 내달까지 744개 시설물 '국가안전대진단'

진도군은 내달 30일까지 지역 내 744개의 시설물에 대해 '2018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2018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민간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안전예방활동이다.

군은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해빙기 점검시설과 교량, 하수처리장 등의 집중관리대상 및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현장점검, 일제 전수조사를 전개하고 시설물

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1월 23일 청사 지하종합상황실에서 실·과별 대진단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준비회의를 개최하고 진단방법, 안전신고 활성화,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특히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에는 개별 시설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자체점검과 공공기관 직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군민참여확대를 위해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민·관 캠페인과 온·오프라인 홍보를 전개하는 등 안전신고 문화를 군민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생활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upark@



진도 고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공 2019년까지 상권 정비 등 10여개 사업 55억원 투입

진도군 고군면 일원에 추진되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진도군은 지난 5일 고군면 오상리 일원에서 이동진 진도군수와 추진위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공식(사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촌지역 읍·면소재지에 교육, 의료, 문화, 복지, 경제 등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배후마을을 연결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올해 1월부터 2019년까지 12월까지 2년 동안 중심 상권 정비 사업 등 10여개 사업에 국비 38억원 등 총 55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보행로와 주차장 조성, 주택·간판 정비, 마을 복지회관 신축, 마을 가구

기 사업 등을 실시한다. 군은 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 설명회와 전문가 초청 교육,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 주민 역량 강화에 노력했으며 워크숍과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군은 여러 가지 공사가 함께 시행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불편 사항이 예상되어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진도군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고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심 거점 기능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사업을 계기로 고군면과 진도군의 미래가 새롭게 쓰여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upark@

해남군 향토문화 자료 디지털 집대성

역사·생활·성씨 등 9개 분야 DB화 내년까지 완료

해남군의 자연과 역사, 생활, 민속, 문화유산 등 다양한 자료가 디지털로 구축된다.

해남군은 6일 군의 모든 향토문화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해남문화대전' 편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해남문화대전은 해남군의 다양한 향토 문화 자료를 수집·연구·분석해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이를 디지털 화해 인터넷과 모바일 등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다.

국비 1억5000만원 등 총 5억원이 투입되며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약체결을 통해 오는 5월까지 기초조사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 편찬작업에 착수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리, 역사, 문화유산, 성씨·인물, 정

치·경제·사회, 종교, 문화·교육, 생활·민속, 구비전·언어·문학 등 9개 분야의 글은 물론 사진과 동영상 등을 담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특히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해남의 역사유물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사이버유물전시관도 구축해 해남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자원화 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의 문화 전부를 온라인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역 백과사전이 생김으로써 해남의 역사문화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조선시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의 맥을 잇는 지역문화 편찬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제2종 주거지역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합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상수도 급수 공사 완료
- 급매-4200만원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팟섬
- 향후 개발가치 100억 이상
- 장기투자 최적
- 타 부동산 교환가능
- 매매 - 14억 분할매매가

거문도,토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400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전망좋은
- 근접토지가 경매로 평당 50만원에 낙찰됨 (20명 입찰)
- 전원주택/ 펜션부지 최적
- 장/단기 투자가치 좋음
- 매매 - 1억 6000만원 (평당 4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락희 호텔 /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 210평 (실 147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스크린실내 골프장 등등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400만원 임대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 (조정가)

주인직매 H.010-3605-5000